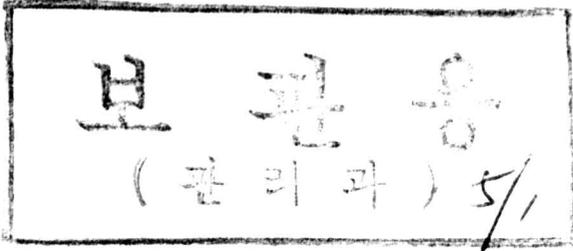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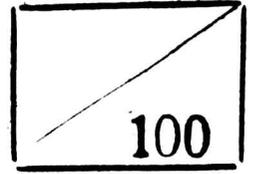


국통 73-1-157



北韓言語政策의 特徵과 實態把握

1973. 11.

國土統一院

이 報告書는 國土統一院 73年度 下半期
學術用役に 關한 最終 報告書로 提出합니다

1973. 11.

研究機關：釜山大學校 統一問題研究所

研究責任者：유 수 현

目 次

第 1 章 序 論	3
第 2 章 北韓言語政策의 交遷過程	6
1. 第一期 (1945 ~ 54) : 統一案時代	6
가 . 漢字廢止政策	10
나 . 말다듬기 運動	11
다 . 言語教育	13
2. 第二期 (1954 ~ 66) : 「철자법」時代	13
가 . 「조선어 철자법」	15
나 . 國語規範化 運動	18
3. 第三期 (1966 ~ 現在) : 規範集時代	19
가 . 朝鮮말 規範集	21
나 . 文化語 運動	24
第 3 章 北韓言語 政策의 特徵과 實態	27
第 4 章 北韓의 對南言語戰略	47
第 5 章 結 語	51

第 1 章 序 論

解放以後 四半世紀에 걸쳐 相異한 體制와 「이데오로기」를 基盤으로한 南北分斷은 한 거리의 思想과 價值觀의 顯著한 差異를 形成하게 되었을 뿐아니라 國語에 대한 연구에 있어서까지 한가지의 對象만을 研究하되 아무런 相互間의 疎通과 情報의 交換없이 獨自的으로 研究해 온 結果만을 惹起하여 우리나라 固有의 傳統的인 言語를 驅使하고 解釈하는 問題에 있어서도 南北間의 激甚한 差異를 示顯하게 되었다.

그러나 지난 72年의 74聲明에서 韓國側의 李厚洛部長과 北韓의 金英柱는 共同聲明을 發表하여 分斷의 영구성을 終息시키기 위하여 南北韓은 民族的次元에서 南北間의 平和的 統一努力을 加一層 振作시키는 基本的 合意를 보게 됨으로서 南北은 비로서 接觸과 對話의 실마리를 찾게되었으며 이에따라 南北은 多方面的인 諸般交流를 具體的으로 實踐한다는 것이 앞으로의 重大한 課題로 登場하게 되었다.

南北韓이 民族的感情을 合一시키고 永久的인 韓半島의 平和나 福祉社會를 建設한다는 것은 南北韓의 現政治體系가 안고 있는 共同課題가 아닐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北韓은 지금까지 一方的이고 強奪的姿勢만을 堅持한 채 韓國과의 真正한 協力摸索의 길을 外面하고 오로지 그들의 對南社會主義革命誘導를 爲한 폭력 및 무력도발의 對南好戰性을 전혀 拋棄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對南協商過程中에 我側의 진정한 의도에

대하여 의식적으로 간과하면서 政治・軍事問題의 우선적 해결만 주장하고 있어 7.4 声明以後 모처럼 트인 南北韓의 對話疎通의 창구를 봉쇄하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韓國은 이에 대하여 그대로 反擊만을 하기 위한 對北戰略의 수립에만 固着될 수는 없으며, 朴大統領의 6.23 宣言의 內容을 一貫性있게 推進하기 爲하여 對內外的 與件의 變化에 能動的으로 對處하는 現實的이고 合理的인 對北韓 接近方策이 研究되어야 할 것이다.

本 研究는 上記와 같은 우리의 自主的 統一努力을 實地적으로 뒷받침하기 爲하여 北韓이 언젠가는 現 對南政策을 修正하지 않을 수 없는 狀況이 必然的으로 到來할 것을 予想하여 南北韓 言語共同研究作業을 爲한 先行作業으로서 北韓의 言語政策實態를 正確히 分析하여 對北韓交流를 爲한 接近方案에 기초가 되는 參考資料로서 寄與하기 爲한데 本 研究의 目的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적십자회담이나 南北調節委員會會議에서 느낄 수 있는 바와 같이 北韓은 住民들의 思想性, 革命性을 鼓吹하기 爲하여 愛國, 民族, 革命, 思想問題等과 結付된 革命的 用語 이를테면 「民族的大團結」, 「祖國의 平和的 統一」, 「革命傳統教養」, 「社會主義的 愛國主義」, 「集團主義精神」, 「革命的大事變」, 「主體思想」 등의 獨特한 用語를 創作했고 이와같은 用語를 南北對話의 廣場과 對南宣傳에서 頻繁히 使用함으로써 南韓國民들의 民族的共感을 誘發하여 그들의 主張과 政策을 容易하게 浸透시킬 수 있도록 努力하고 있는 바 「合作」, 「愛國力量」, 「民主主義의 原則」 「自由의 原則」等 南北間에 解析과 見解差異가 懸隔한 用語를 公式文件에 使用함으로써

協議文件을 圍繞한 物議가 發生할 時 有利한 立場을 取하려는 戰略的 言語政策을 示顯하고 있다. 따라서 本研究은 이와같은 北韓의 對南言語戰略에 對備한 打開策을 마련하기 爲해서도 시급한 課題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第2章 北韓言語政策의 變遷過程

北韓의 民族構成은 韓國과 마찬가지로 소수의 華僑를 除外하고는 單一한 韓民族으로 構成되어 있다. 韓民族은 「통구우스」系 蒙古人種으로 歷史上 周圍의 混血이 不可避했겠으나, 強大族에 吸收되지 않고 그들을 잘 포용하여 世界에서도 드문 單一民族으로 成長해 왔다. 言語는 3~7個 方言으로 区分되나 대체로 共通되는 하나의 韓國語로 通用되고 있다. 이처럼 民族, 言語, 文字에서 民俗에 이르기까지 南北은 거의 同一하므로 同族分斷의 設움은 여간 큰 것이 아니다.

國土가 兩斷된 以後 北韓이 걸어 온 言語政策은 結果적으로 南北의 距離를 넓혔다. 이것이 言語分化的 실마리가 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그 사이 두차례에 걸친 綴字改革을 경계로 다음과 같은 三期로 区分하고자 한다. 이 改革은 言語政策上 重要한 事件일 뿐만 아니라 항상 經濟計劃과도 밀접한 關聯을 가지고 있음에 留意해야 하겠다.

- 第一期(1945~1954)……統一案時代(8.15 解放)
- 第二期(1954~1966)……綴字法時代(2個年計劃初期)
- 第三期(1966~現在)……規範集時代(7個年計劃中期)

1. 第一期(1945~54)……統一案時代

日本帝國의 기반에서 벗어난 1945年 8.15 일은 韓民族의 새로운 歷史가 始作된 날이다. 그러나 當時의 實情은 過去 殖民地統治가 가져 온 同化政策의 잔재로 범벅이었다. 그리하여 우선은 이것을

어떻게 하면 하루 빨리 清算하고 참다운 民族文化를 수립하느냐 하는 것이 歴史的인 共通課題였다. 이러한 結果를 빛은 경위는 日帝의 對韓侵略史를 엿봄으로써 알게 될 것이다.

한편 당시 情勢는 喜悲双曲이 얽혀있다. 모두가 日帝의 쇠사슬에서 벗어나 自主獨立이 곧 될 것으로 믿었다. 그러나 解放과 더불어 三八線을 경계로 南과 北이 갈리는 悲運에 잠겼고 예비없는 放任에서 빚어진 混亂을 안겨다 주게 되었다. 그런 가운데서도 가장 순조롭게 進行된 것은 國語運動이었다고 생각된다.

日帝時代 대부분은 二語併用生活이었고 日語專用生活은 不過 末期의 8年이었다. 따라서 8.15 當時 母語를 망각까지 한 例는 少数였고 母語文字未解得者는 相当數에 이르렀다. 그러므로 그 時期에 가장 當面한 問題는 迅速한 國語普及이었으며 바른 國語普及보다도 國字普及이 더한 急先務였다. 日帝의 된서리를 맞은 朝鮮語學會야말로 民族光復의 덕분으로 드디어 出獄한 李克魯, 崔鉉培, 李熙昇, 鄭寅承 네 幹部陣容을 中心으로 再建하게 되었다. 過度的 美軍政의 施政을 기다릴 겨를도 없이 時代의 要請에 따라 곧 이 거룩한 民族的 大事業을 担当하게 되었다.

民族의 절대적인 승양을 받으면서 다시 出甞한 朝鮮語學會는 우선 第1回 國語講習會師範部에서 資格試驗에 依해 約40名의 國語講師를 選拔했고 이들은 全國 各處에 配置되었다. 한낱 民間團體인 이 學會의 活動은 南北을 莫論하고 全國 도처에서 연해적인 國語普及運動을 活潑하게 일으켰다. 統計는 없으나 그 成果가 빠르고 방대한 것이었다고 생각되며, 1945年 9月부터 約 1年間에 한고비를 넘겼다. 그런데 서울서 가장 일찌기 學會 直屬으로 三次에 걸쳐 열린 國語講習會는 매우 重要的 것이었다.

첫째번 國語講習會 (1954.9.11~24) : 사범부 659名,
고등부 515名

둘째번 國語講習會 (1945.10.24~11.13) : 사범부 630名

셋째번 國語講習會 (1946.19~18) : 사범부 132名

이 時期에 使用된 教材는 주로 朝鮮語學會의 「한글 맞춤법 통일안」이었으니, 그 規範에 따라 대대적으로 教育되고 실시되었다. 「統一案」은 1933年(昭和8年) 10월에 學會가 制定하여 1940年 6월에 一部를 改定한 것이었다. 이와함께 1936年(昭和11年) 10월에 査定, 發布한 「사정한 조선어 표준말 모음」도 普及되었다. 여기서 集約되는 綴字法의 大原則은 語源表示로서 現行과 같은 것이다. 南北에서 共同으로 實施한 이 規範은 20여년이 지난 지금도 이에 따라서 많은 共通點을 가지게 되었다.

解放直後 이처럼 約 1년에 걸쳐 展開된 이 運動은 주로 全國의 各級敎員 및 一般知識層을 相對로 한 것이었다. 그러나 學校나 社會敎育에서는 朝鮮語學會 편찬으로 된 敎本類가 전적으로 쓰이었다.

「한글 첫 걸음」, 1945.11.3 朝鮮敎學叢書 刊.

(國民學校 4.5.6學年用 및 中學用)

「初等國語敎本」上, 1945.12.30 朝鮮書籍印刷刊(國民學校 1.2學年用)

「初等國語敎本 한글 敎授 指針」, 1945.12.30 朝鮮書籍印刷刊(敎師用)

「初等國語敎本」中, 1946.4.15 朝鮮書籍印刷刊(國民學校 3.4學年用)

「初等国語教本」下. 1946.5.5 朝鮮書籍印刷刊. (国民学校
5.6学年用)

等히 初等과 中等學校에서는 「한글 첫 걸음」이 다 人間用으로
쓰이었던 것이다.

北韓에서는 1945年 8月26日 平南人民政治委員會가 行政權을 이
양받았고 12月6日 그 사이에 發足한 北朝鮮 五道行政局에서 學校
教育臨時措置要綱을 發表했다. 이 조치는 植民地教育을 씻기 爲한
첫 公式的 指示였다고 생각된다. 이어서 1946年 3月23日 金日
成 20個政綱 第1條에 日帝殘滓의 徹底 肅清을 내세웠고 1948年
9月9日 北韓政權樹立 以後 蘇聯式 教育으로 改革하기에 이르렀다.
그런데 言語政策은 1949年 9月8日 初等義務教育制 實施와 同時에
전반적인 한글 專用을 公的으로 채택한 것이 특징이었다.

당시 유일한 規範으로 삼았던 「한글 맞춤法 統一案」은 1946年
9月8日에 일부를 다시 改定했으나 이후로 다같이 이를 따랐다.
특히 1947年 2月3日 北朝鮮 臨時人民委員會決定 第175號에 의해
朝鮮語硏究會를 설립했으나 (內閣決定은 1948年 10月2日), 이
「통일안」의 지지나 시행에는 변동이 없었다. 더구나 1948年 9
月 北韓政權이 수립되기까지는 38선을 통한 往來가 쉬워서 出版物
의 유통도 순조로왔었다.

이 처럼 共通된 言語文字를 教育하던 南北 一致時代는 1954年
9月 그들의 「조선어 철자법」이 제정되기 까지 계속 되었다.
1945년부터 1954년까지 약 1년간의 이 「통일안」 시대는 적어도
言語文字의 方面에서 보아 南北의 차이가 거의 없었다. 이를테면
1947年 3月 8日에 刊行된 「표준 말 맞춤법 사전」에 나타난 「朝
鮮의 唯一한 철자법 統一案과 標準語는 이미 조선어 學會에서 發

表하여 대개 누구든지 그에 贊同하여 오는 것인데 이제 이들을 集大成하고 또 附錄을 더하여서 「표준말 맞춤말 사전」을 刊行하여 一般의 使用에 便利하게 하였다. ...」와 같은 태도로써 인정되는 터이다. 다만, 言語教育에 있어서 露語를 外國語로 선택한 것은 時代의 환경에 따른 差異라 하겠다.

가. 漢字廢止政策

解放 직후의 國學普及運動은 多大한 결실을 맺었다. 그러나 그 대상은 各級 교원과 知識人 및 學生層이었다.

1930年(昭和5年) 통계에 의하면 人口약 1,500万에 약 1,000만 즉 68%란 많은 文盲이 있었다. 이에 비추어 해방 당시에도 적지 않은 文盲이 있었을 것인데 이에 대한 識字運動도 방방곡곡에서 展開되었다. 이사업은 해방직후의 國學普及運動의 연장으로서 一般에게 끼친 좋은 일이었다.

北韓에서는 1948년에 약 230万名の 文盲을 퇴치하는 성과를 올렸다고 했다. 분명한 통계가 없어서 알기 어려우나 당시 全國 도처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을 것으로 보아 의심되지 않는다. 그런데 이 운동은 다만 한글을 가르쳐서 읽고 쓰게 한 것이었으나 바른 國語와 맞는 綴字法을 익혔다고 보기에는 어려울 것이다.

1949年9月 北韓에서는 한글 專用-漢字廢止를 단행했다. 이는 그들의 埋念과 識字運動過程에서 내려진 결론이었다고 생각되나 어쨌던 획기적인 일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면 이 時期의 文字生活은 대체로 혼란했었을 것을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우선 당시의 識字運動이란 것이 真正한 國語確立을 達成하기에는 여러 문제를 간직한 것이었고 한글 專用도 急進的으

로 준비없이 단행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한글 專用政策이 文字의 民主化나 大衆化라고 目的에는 完全히 부합하지만 그 實施以後에 어떠한 폐단이 나타났는가를 보아서 준비없는 政策이었다는 것을 추측할 수가 있다. 따라서 필연코 뒤에 남은 문제가 있게 되고 이에 대한 치료의 方法이 提起될 것이다.

실제로 한글 專用을 단행한 이후의 폐단은 分明히 기록된 바가 없으나 그이후에 展開된 일련의 運動으로 보아 이와 관련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 時期에 北韓에서 展開된 것으로서 民主化와 大衆化를 부르짖는 言語淨化 規範性을 높이기 위한 綴字法 또는 표준말의 보급에서 語彙增加 및 文体의 美化와 精確한 意味使用과 文法의 統一등에 이르는 이른바 말다듬기 運動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는 先行한 한글 專用의 後漏症을 치료하기 위한 일종의 言語工學이라고 보아서 좋을 것이다.

나. 말다듬기 運動

한글 專用을 실시한 後에 言語를 더 잘 다듬어 쓰는 운동을 일으켰는데 그內容은 쉽고 分明하고 또 간결하게 말을 하며 줄을 쓰자는 것이었다. 그 目的은 共產主義的인 教養에 연결시키는 同時에 國語의 文化性을 높이는 것이라고 했다. 그들의 말다듬기 運動은 이를테면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1) 쉽게 쓴다.

도고 → 버집

우화 → 비신

적심하다 → 순 치다

이양을 실시하다 → 모를 내다

식수를 진행하다 → 나무를 심어 가다

성공을 이루다 → 성공하다

(2) 日本式을 없앤다.

荷造, 仕上, 面白, 生徒

(3) 意味를 정확하게 쓴다.

모름지기……마땅히나 반드시의 뜻

모르면 모르되 아마의 뜻이 아니다.

(4) 간결하게 다듬는다.

<이작업반들에 의하여 제작된 탈곡기는 대중들에게 절찬을 받는 것으로 되었다> → <이 작업반들이 만든 탈곡기는 대중들의 절찬을 받게 되었다.>

(5) 좋지 못한 틀을 없앤다 (경우에 알맞게 선택한다)

<로인과 모성에게 좌석을 양보하자!> → (로인과 아기어머니에게 좌석을 드립시다)

이러한 말다듬기 運動은 第Ⅱ期에 들어서 새로운 文化語運動으로 發展해서 더욱 철저하게 展開되어 갔다.

이 말다듬기는 漢字語와 日語 및 文体를 주로 한 것인데 文化語에는 外来語까지도 그 대상으로 포함시키고 있다.

다. 言語教育

1946年3月23日에 發表한 金日成 20個政綱은 政治, 經濟뿐만 아니라 文化全盤에 걸친 基本政策을 淸명한 것이었다. 여기서 규정된 教育政策은 日帝殘滓의 淸산과 階級의식의 確立이었으니 解放직후에 있었던 民族運動의 일환으로 國語教育에 역점이 주어졌던 것이다. 1947年10月에 金日成大學을 비롯한 네 大學이 세워졌고 人民學校가 증설되었으나 아직 教育은 토대가 잡히지 않았었다.

그러다가 1948年9月9日 이른바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이 수립된 후에 本格的으로 教育을 改革하기 시작했다. 이때에 5.3.3.4의 學制를 淸정했고 教育課程과 教科書 등은 朝鮮의 예를 따른 것이 많았다.

다음 第二期의 言語教育에서 提示한 바와같이 國語가 중심적 教育項目으로 되었는데 이는 体系的인 言語와 文法의 學習이 아이의 思考發達에 거대한 역할을 한다고 보는 蘇聯의 경우와 같다.

25~31%에 해당하는 시간을 國語科에 충당하고 中學校에서는 주당 國語 8~5時間에 露語 3시간이라면 外來語가 그리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아니었다고 생각된다.

2. 第二期 (1954~66) : 「철자법」 시대

1954年은 韓國動亂이 休戰으로 일단락된 다음해고 이른바 人民經濟復興 및 發展 3個年계획 (1954~56)을 시작한 해였다. 특히 1954年 10月에 열린 最高人民會議 第8次會議에서는 地方主權機關과 地方行政機關을 增設하고 地方行政을 강화하는 등 戰後의 改革을

단행했다. 教育에 있어서도 1956年부터 4年制, 1957年부터 7年制 技術義務教育을 各各 실시하고 부족한 技術者를 養成하기에 힘 쓰던 시기였다.

이러한 1954年初에 시작하여 4월에 새로운 「조선어 철자법」 초안을 作成하고 2個月여의 討議를 거친 다음 9월에 이를 공포했다. 이것은 1952年 10月 9일에 內閣결정 제 183号로 설립된 科学院 朝鮮語 및 朝鮮文學研究所에서 주관했는데 당시 金科玉條로 여기던 朝鮮語學會의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고쳐 달리 만든 것이다.

해방 10년에 드디어 國語上의 南北分岐란 서글픈 사태를 벗어났으나 지역적으로 달라졌을 뿐 그 大綱頭에 있어서 큰 差異가 없는 것은 얼마큼 다행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國語, 國字의 分裂이 처음 시작되었음을 뜻하는 이 「조선어 철자법」은 「한글 맞춤법 통일안」의 한 修正案이다. 이 「통일안」은 1933년에 제정된 것으로 그 후에 一部 改正한 일도 없었고 發展적으로 修正해야 하겠다는 意見이 대두했던 만큼 이러한 部分的인 修正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文字生活의 發展은 장차 文字改革을 合理的으로 해야하고 이에따라 綴字法도 달라질 것을 구상하고 있었음은 주목할 일이다. 실제로 이에 대한 꾸준한 努力을 기울이고 있다고 했다.

이는 1958年 3월에 숙청된 金科奉에 의해 계획되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러면 그 改革이란 필경 가로 풀어쓰기였음에

틀림이 없을 것이다.

그는 周時徑 (1876~1914) 의 직 계제 자로서 이미 中國亡命당시 「집 더 조선말본」 부록 「좋은 글」에서 풀어쓰기를 강력히 주장한 바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方面의 1945~58年 金科奉時代가 끝났으나 앞으로의 方向은 전환될 것이 明白하였다. 곧 1964年 1月과 1966年 5月의 金日成 敎示가 그 새로운 方向의 제시였다.

가. 「조선어 철자법」

1954年에 制定, 公布한 「조선어 철자법」은 全文八章 56項으로 전에 없던 文章符號가 條文에 새로 삽입되어 있다. 그리고 첫머리의 총칙에서 철자법이 形態主義原則에서 있음을 천명하고 標準語는 共通性을 많은 現代語에서 정한다는 것을 밝혔다.

이는 歷史적으로 뿌리박고 그 정당성이 인정된 綴字法에서 形態主義를 기본으로 한다고 했으니 종전의 「한글 맞춤법 통일안」과 실질적으로 大同小異한 것이다.

이후 이를 보급하기 위한 해설로서는 1956年 과학원의 「조선어 철자법 사전」과 1958年 장장명의 「조선어 철자법 해설」(교원용) 등이 간행되었다. 또한 그 밖의 사전류도 이런 목적에 이바지 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 새로운 철자법에서 實質적으로 달라진 점은 한글 字母에 대한 規定과 細則의 部分的인 事項에 불과하다. 특히 한글 字母는 종전의 24字母를 부정하고 複合字를 넣은 40

字母를 인정한 것이다.

24 字母 : ㄱ ㄴ ㄷ ㄹ ㅁ ㅂ ㅅ ● ㅈ ㅊ ㅋ ㅌ ㅍ ㅎ 아 야 어 여 오 요 우 유 으 이

40 字母 : ㄱ ㄴ ㄷ ㄹ ㅁ ㅂ ㅅ ○ ㅈ ㅊ ㅋ ㅌ ㅍ ㅎ ㅊ ㅊ ㅂ ㅂ ㅂ ㅂ 아 야 어 여 오 요 우
유 으 이 애 애 에 예 외 위 어 와 외 왜

이러한 된소리 5 자와 複母音字 11 자 조합 16 자의 추가는 사소한 것으로 아무래도 무방할 듯 하나 辭典이나 온갖 索引의 字母配列法에서 엄청난 차이를 자아내게 되는 것이다.

이런 경향은 南韓에서도 된소리 5 자를 세운 29 字母의 配列法을 取한 1958 年 6 月 한글학회의 「중사전」 이후 이런 유가 일부에서 속출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한글 맞춤법 통일안」의 24 字母体系를 개정하지 않는 만큼 29 字母의 設定이나 그 配列法은 잘못임이 분명하다.

이 「조선어 철자법」에서는 이러한 40 字母의 채택과 함께 子音字의 명칭을 달리 규정했다. 곧 기음, 니음, 디음... 식으로 일관되게 고쳤을 뿐만 아니라 그, 느, 드... 식도 허용했다. 또 쌍기역, 쌍디음... 은 된기음, 된디음... 식으로 다 <된>으로 바꾸어 놓았다.

이 명칭문제는 고래로 일부에서 써 오던 것이니 40 字母에 비해 그다지 큰 改變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이로써 한글字母에 대한 規定은 南北이 서로 달리하게 되었는데 이 40 字母는 1966 年 「조선말규범집」에서도 그대로 채택되었다.

다음 이 「조선어 철자법」細則에서 변경 전 部分的인 事項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漢字音을 어느 位臚에서나 本音대로 적는다고 하여 ㄹ이나 ㄴ頭音이 인정되고 頭音法則이란 것이 부정되었다.

(제 5, 6 항). 例 : 藥園락원良心량심

(2) 語幹의 母音이 <ㅣ, ㅐ, ㅑ, ㅓ, ㅕ, ㅗ>인 경우와 語幹끝이 <하>인 경우는 語尾를 <여, 였>으로 적는다고 하여 發音主義를 취하였다 (제 13, 43 항)

例 : 비여, 비였다, 개여 개였다, 세여 세였다, 저여 저였다 쥐여 쥐였다. 띄여 띄였다.

(이에 따라 구태여, 도리어, 드디어, 헤엄 ……으로 됨)

(3) 준ᄒ은 중간에 높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센소리로 적는 것도 허용한다. (제 17 항)

例 : 가ᄒ다 (원칙)	가라 (허용)
다정ᄒ다	다정타
례ᄒ컨데	례컨대
정결ᄒ다	정결타
얹다 (옳음)	안타 (틀림)

(4) 會成語 内部에 사이표 (,) 를 쓰고 사이 스을 버린다.

(제 19, 24 항)

例 : 기'발 들'것 일군 낫일 대일 도적 (道的) 리과 (理科) 세노탕다 짓이기다 해조

(5) 接尾辭와 결합되어 나지 않는 들받침은 안 나는대로 적는

다 (제 26 항)

예 : 널다랗다 (널따랗다) 널직하다 (널찍하다)

(6) 표준어의 일부修正 (41 항)

예 : 놀 → 노을 눈추리 → 눈초리 달갈 → 닭알 도둑 → 도적
부수다 → 부시다 쇠고기 → 소고기 장이 → 쟁이 줍다 → 줯다
해나다 → 해여나다 아내 → 안해 외치다 → 웨치다 위 → 우 원수 → 원쑤

(7) 과거의 반복된 행위로 < 굳 > 을 인정한다. (제 44 항)

예 : 가굳하였다

(8) < 지다 > 가 붙은 것은 띄여 쓰지 않는다 (제 48 항)

예 : 전방지다 넘어지다 좋아지다 추워지다 되여지다.

(9) 引用표는 < > , 거듭 인용표 < > 를 쓰고 지세 (-) 를 쓸 수 있다. (제 56 항)

예 : 공업 - 농업 국가 굳은 - 넓은 잎 나무

이 새로운 規定은 (三) 준^ㅎ의 원칙을 버리고 허용을 扞한것 (4)사이표 (,) 의 폐기등을 除外하고 다소 1966년 「조선말 규범집」에서도 그대로 채택한 것들이다.

나. 國語規範化運動

「한글맞춤법 통일안」과 다소 다른 「조선어 철자법」이 公布前 1954년 이후 言語의 규정성을 높이기 위한 여러 施策이 나타났다. 특히 이 새로운 正書法에 의한 規範化運動을 널리 일으킨 것은 그 실시를 強力히 해 나가려는 뜻에서였다고 생각된다. 새로운 이 「조선어 철자법」을 표준으로 한 國語確立策

은 말하자면 「통일안」의 제 1 단계는 修正을 뜻하는 것이다.

北韓의 國語規範化運動은 科學院의 朝鮮語 및 朝鮮文學研究所가 주관이 되었는데 1954년 이후 다음과 같은 刊行物을 年次的으로 刊行하여 그 표준이 되게 했던 것이다.

「조선어 소사전」 1956년

「조선어 철자법사전」 1956.12.30, 537면

「조선어 외래어 표기법」 1956.1.10, 121면

「조선어 사전」 6권 1960 ~ 62. 10.15. 540 + 10년 (올림말 총수 187.137)

「조선어 문법」 1권 1960.6 + 479면 2권 1963.6 + 三十一면. 이것이 표준이 되어 전개된 規範化운동은 또한 1949년 9월 한글 전용을 強力히 실시한 以後 중요한 言語文學의 円滑한 소통을 보장하기 위한 하나의 방도로도 해석된다.

그러면 이 운동을 전기의 漢字廢止政策에서 연습한 바와 같이 言語文學의 民主化나 大衆化를 達成하기 위한 기초적인 성격을 지닌 것이다.

反面에 그 規範이 상당히 혼란한 狀態에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다. 그러나 이것이 文化運動으로 바뀌어 장기화하게 된 것을 보면 北韓의 言語政策에 있어서 한글專用의 後補治療가 하나의 큰 과제임에 틀림없다.

3 第三期 (1966 ~ 現在) : 規範集時化

1958년 3월 金科奉時代가 끝난 뒤 言語政策에 대한 方向은 轉換되기 始作했는데 그 公式的인 表明은 1964年 1月3日 言語學者들과의 懇談席上에서 한 金日成教示였다. 이것은 1966년

5月 14日 教示에서도 「文化語」를 中心으로 거듭천명되었으며, 여기서 提示된 基本原則은 앞으로의 새로운 政策에 進路를 決定한것으로 주목된다.

이에 따라 1966년 7월에 公布된 「朝鮮말規範集」은 1954年의 「朝鮮語綴字법」에 대한 改定이 있었으며, 약 10年만에 第2次改定을 하게 된 것이다. 이것은 內閣直屬 國語查定委員會에서 全國에 公布한 것으로 보아 종전보다 強力히 施行하려는 뜻이 엿보인다. 이 1966年은 전면적인 技術革新과 文化革命을 遂行하고 人民生活을 根本적으로 끌어올려 發達된 社會經濟工業國으로 到達한다는 임무를 띄우고 1961年부터 始作한 第2次 7個年計劃의 後半期에 屬한다.

一般的으로 共產國에서는 言語를 重要視하지만 두 차례에 걸친 教示의 內容은 文字革命, 漢字語, 外來語, 漢字教育, 綴字法, 言語淨化(文化語), 語文教育등 言語問題 全般에 대하여 소한 方針을 提示한 것이다. 「朝鮮語를 發展시키기 위한 몇가지 問題」란 表題로 된 이 教示는 우선 文字改革에 대하여 反對의 立場을 取하고 있다. 過去의 文字改革에 대한 論爭이란 아마도 金料奎系의 풀어쓰기를 指稱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은 民族分斷과 科學文化의 低下등의 理由를 들어 反對한 것이 잘한 일이었다고 단정했다.

다만 이를 연구했다가 祖國統一이후에 가서 斷行해야 한다고 했다.

다음 漢字語는 굳어진 것만 쓰도록 制限하고, 外來語는 범람한 것을 整理하고 漢字는 南北이 統一될 때까지 가르쳐서 읽고 쓰게해야 하고, 綴字法은 띄어쓰기를 調節해서 어느 程度 解決하고 言語淨化는 語文學研究所가 統制機關으로서 쉽고 좋은 말로 더듬어

가야하고, 語文教育은 學校에서의 改善・強化와 敎課書의 再檢討 및 機關에서의 國語學習의 制度化등을 강구해야 한다는 것등이다. 특히 여기서 한글전용과 漢字敎育의 부활은 새로운 전환이며 나머지는 綴字法의 改定과 文化語運動으로 集約해서 볼 수가 있다.

가. 「朝鮮말 規範集」

第2次改定인 「조선말 規範集」은 金日成敎示에 따라 1966年 6월에 制定하여 同年 7月 30일에 出版, 公表했다. 「맞춤법」 「띄어쓰기」, 「문장부호법」, 「표준발음법」의 4部로 되어있고, 各己 총칙과 세칙의 여러項으로 이루어져 있다. 1954年の 「조선어 綴字法」을 再整備한 것으로서 특히 띄어쓰기를 더 세밀하게 규정하고 표준발음법을 더 확충하여 규범화 한 것이다. 이것이 「조선어 철자법」과는 그다지 큰 차이가 없으나 「한글 맞춤법 통일안」에 比하면 실질적으로 적지않은 變革이라고 하겠다.

「맞춤법」은 第7章 28項으로 되어있는데 여기서 달라진 것은 총칙에서 가로쓰는 原則을 規定한 点과 細則에서 대략 다음과 같은 것들을 고친 点이다.

(1) 순서는 적지 않는다. (제 13項)

例: 가타(가하다), 다정타(다정하다)

례컨대(례하 견대)

(2) 종전에 쓰던 사이표(,)는 모두 없앤다. (第18項)

例: 그믐달(그믐'달) 기발(기'발) 덧이(덧'이),

해조(해'조)

(3) 漢字語의 ㄹ頭音이 變한 것을 認定한다 (第26項)

例: 나팔(라팔), 나사(라사), 남색(람색), 로(노)

유리 (류리) .

「 띄어쓰기 」는 6章 23項으로 되었는데 여기서 달라진 것은 대략 다음과 같다.

(1) 名詞들이 토없이 직접 어울린 경우에는 묶어 지는 덩이를 單位를 띄어쓴다고 하여 거의 붙여쓰게 되어있다. (第2項)

例 : 공작기계 새끼 치기 운동을 일으켰다.

(2) 不完全名詞는 붙여 쓴다. (第3項)

例 : 종을 칠 것. 말할 나위가 없다. 썰녘에 떠났다. 시간상으로 앞섰다. 회의 중이었다.

(3) 數詞는 万, 億 → 兆의 單位로 띄어 쓴다. (第5項) .

例 : 93億 7千 258万 6千 365, (구십삼억 칠천이백오십 팔만 육천삼백예순다섯.)

(4) 單位의 名詞는 앞에 붙여 쓴다. (第7項)

例 : 일년 1년, 1966年 2시 39분 5초, 서른칠레, 다섯알

(5) 補助的으로 쓰인 用語를 붙여 쓴다. (第10項) .

例 : 읽고있다. 읽는가싶다, 기여넘어가, 살펴본다. 울듯하다. 들을만하다. 아는체하다.

(6) 하나로 녹아붙은 것은 붙여 쓴다. (第15, 19項)

例 : 간밤에, 여러차례, 끝이끝대로, 아닌게아니라, 듣다못해, 보아하니.

(7) 學術用語는 묶어 지는 덩이를 單位로 띄어 쓴다. (第72項)

例 : 작은물 병아리, 나도국수나무

「 文章符號法 」은 19項으로 되어 있으며 새로 追加된 것이 더 있다.

(1) 숨김표(〇〇〇), 같음표(〃), 목결표(~) 등을 새로 規定했다. (第14, 15, 16項).

(2) 章節등을 가르는 符号와 차례를 새로 規定해 놓았다.
(第19項)

例: Ⅰ. Ⅱ. Ⅲ.
 一. 二. 三.
 1) 2) 3)
 (1) (2) (3)
 ① ② ③

「표준발음법」은 11章 43項으로 되어있는데 「조선어 철자법」에서 한 章이었던 것을 여기서 따로 세워 광범하게 規定한것이 특색이다.

(1) <귀>를 홀모음으로 발음한다 (第3項)

(2) 漢字語의 <계, 레, 헤>는 <게, 레, 헤>로 發音한다.
(第4項)

(3) 頭音<ㄹ, ㄴ>는 제대로 發音하는 것을 原則으로 한다.
(第5, 6項)

(4) ㅎ 받침은 다음과 같이 發音한다. (第17, 18, 19項)

例: 좋다 (조타), 닿아 (다아) 마흔 (마흔), 좋니 (존니) 히
 히 (히), 히 이 (히으시), 히 과 (히 과)

(5) 사이소리를 發音한다. (第31, 32, 33, 34, 38項)

例: 밭일 (반닐), 대잎 (넌닐) 배전 (전), 손등 (손뚱)
 웃우에 (우에)

(6) 漢字語의 사이소리를 發音한다. (第43項)

例: 내과 (내과) → 단가 (단가) 당적 (당적), 려행권 (려행권)

헌법(헌법) 거점(거점), 안전(안전), 성과(성과)

나. 文化語運動

이미 言及한 1964年의 金日成敎示에는 當연한 여러 言語 問題의 基本方法이 提示되어 있다. 특히 많은 漢字語에 關心을 돌려야 할 것을 환기시키고 나서 固有語 가 얼마나 되고 우리 말로 되어버린 漢字語가 얼마나 되는가 알아보아야 하고 새로 나오는 말들은 우리 말 語根에 따라 만드는 것을 原則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하여 쉽고 정확한 말을 쓰도록 강하게 통제할 것을 要求했다.

이러한 基本方向에 따라 우리 말을 정리하여 더 豊富히 發展시킴에 있어서는 思想的으로 動員하고 社会的運動을 벌려 모든 사람들이 우리 말을 바르게 쓰는 氣風을 세워야 하겠다는 規점을 提示했다.

그리고 黨이 옳은 方向만 내세우면 대중은 인차 그것을 따라 온다고 한 것을 보면 상당히 強力한 것으로 驗이 된다. 이처럼 漢字語를 중심으로 外來語 및 綴字法에 대한 大衆化를 부르짖는 것이 이른바 文化語運動의 始發이었다.

우리 말 語根으로 發展시키자는 것은 곧 言語淨化를 뜻하는 것인데, 다만 굳어진 것은 뜯어고칠 必要가 없다고 했다.

이 方向은 더욱 發展하여 1966年 5月 14日 金日成敎示에는 具體적인 文化語運動을 展開할 것과 「조선말 규범집」 초안을 그대로 내보낼것등을 명시했다. 이 時期가 自主性宣言을 하기 直前인 點을 關聯시켜 그 內容을 살펴 보는것이 더 理解하기

쉽겠다. 그는 먼저 우리나라가 中國, 日本, 蘇聯 같은 나라 사이에 있고, 事大主義가 북하여 이 나라들의 말이 적지 않게 들어왔다고 前提하고 우리는 漢字말과 外來語를 固有한 우리말로 고쳐 우리말을 体系的으로 發展시켜나가야 하겠다고 했다.

具體적으로는 方言에서도 우리말을 찾고, 工場이름도 우리말을 부르도록 하고 어린이들의 이름도 늘수록 固有語로 짓는 것이 좋겠다고 했다.

이렇게 가다듬어 發展시키기 爲해서는 터를 잘 닦아야 하는데 평양말을 基準으로하여 言語의 民族的 特性을 保存하고 發展시켜나가도록 해야 하겠다고 했다. 그리고 「표준어」라고 하면 서울말로 그릇 理解되기 때문에 이를 文化語라 하는 것이 낫다고 한 것이다.

이어서 이에 대한 漸進的 方法을 提示하고 文獻의 現代化, 漢字教育和 綴字法改善 및 풀어쓰기 文字改革의 研究 등 1964年 敎示의 要旨도 再 命되어 있다.

여기서 평양말을 基準으로한 이른바 文化語의 確立과 普及을 敎示한 事實은 매우 注目할만한 것이다. 특히 이 敎示는 自主性宣言과 關聯하여 事大主義를 버릴 것을 要求했으며 평양을 중심으로 한 民族性 特性의 保存을 주장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社會科學院에서는 「文化語學叢」이란 季刊誌를 1968年부터 계속 刊行하게 되었고 이를 通하여 그 敎示에서 定해진 實質的인 言語淨化作業과 普及運動을 本格的으로 行하고 있다.

위의 敎示文에도 引用되었지만 周時經의 우리말화와 가로 풀어쓰

기 등이 그 精神的 바탕이되어 있다고 여겨지는 것이다.

한편 1964年 敎示에서 國語辭典의 具體的인 모습을 提案했는데 그것은 쓸 말과 버릴 말을 區別하여 쓸 말만을 수록해야 한다고 했다. 1960~62年 科學院의 「조선말 사전」은 마치 中國의 玉備 같다고 指摘하고 버릴 말을 辭典에서 대담하게 빼버리는 것이 좋다고 했다.

이에 따라 社會科學院 言語學院研究所에서 1968年 9月9日 그의 建國 스무해를 맞으면서 새로운 現代朝鮮말 사전」을 내놓았다. 文化語 가운데서 基本的인 單語的 五万마디를 골라서 올림말로 실었다고 한 이 辭典에는 漢字가 전혀 없고 金日成語錄을 해당 올림말의 뜻풀이에 収録한 것이 特色이다.

第3章 北韓言語政策의 特徵과 實態

學問의 方向, 傾向, 重點을 두는 곳등은 政治, 社會體制에 의해 크게 影響될 수 있다. 國語에 관한 研究에 있어, 北韓은 그 言語觀에 따라 國語의 規範化의 面의 研究에 특히 精力을 기울여 왔다. 이는 南韓에서 純粹 學術的인 面의 國語研究에 重해 왔음과 對照的이다. 北韓에서는, 生産技術을 發展시키기 위해서, 民族 文化를 開化시키기 위해서, 社會 構成員사이의 連繫를 긴밀히 하기 위해서는 國어를 그에 맞게 다듬고 洗練시킴이 前提가 된다는 뜻에서 國어 規範化事業을 積極的으로 實施하였다.

北韓의 言語觀을 理解해야 北韓의 國語規範化의 바른 인식을 얻을 수 있다. 北韓의 言語觀을 엿보기 위해서 「조선어학, 1963년3호,」에 실려 있는 「공화국 창건 15주년과 언어학자들의 과업」이란 論文의 약간을 여기 引用해 보이겠다.

해방후 새로운 社會를 建設함에 있어서 언어의 社會적 기능을 백방으로 높이며 언어의 人民성을 높이는 문제가 아주 重要하게 제기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해방 직후부터 <<대중이 알아 들을 말을 하며 대중이 원하는 글을 쓰며>>, <<대중이 요구하는 글을 쓰며 말을 하기>> 위한 일련의 대책을 취하였으며, -조선말을 전체 人民의 소유로 만들 수 있었다.

조선어의 民主化를 위한 투쟁에서 重要한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人民들의 서사 생활에서 한자를 폐지하고 국문에 의한 유일한 서사

체계를 확립한 것이다.

한자 폐지를 통하여 조선어의 가일층의 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게 되었으며, 언문 일치의 근본 정신을 완전히 실현함에 있어서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되었으며 광범한 인민들이 글을 쉽게 배우고 특히 서사어를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

당과 정부는 언어의 규범화를 촉진시키기 위한 투쟁으로 대중들을 불러 일으켰다.

1948년 10월 공화국 내각에서는 <<조선어 문법>>과 <<조선말 사전>>을 공간할데 대한 결정을 채택하였으며, 이 결정실현을 위한 투쟁을 통하여 <<조선어 문법>>을 내놓음으로써 언어의 규범화에 기여하였으며 따라서 철자법, 표기법, 띄어쓰기, 구두법, 표준 발음법 등을 제정하여 세상에 내놓음으로써 언어 생활에서 규범을 준수하기 위한 노력이 높아졌다. - 다음으로 당과 정부는 언어의 민주화를 위한 투쟁에서 달성한 성과를 일층 공고화하면서 이것을 보다 높은 단계로 발전시키기 위한 대책을 취하였다.

그것은 조선 노동당 제 3차 대회에서 제시한 <<문체의 간결성, 정확성, 명료성을 보장할>>데 대한 과업 실천과 결부되었으며 이것은 오늘 인민적 분공확립을 위한 중요한 내용을 이루고 있다.

당과 정부는 한 편으로는 근로자들 속에서 공산주의 교양을 강화하기 위하여 그 강력한 수단으로 되는 조선어의 역할과 사회적 기능을 높이며 다른 한 편으로는 공산주의 교양과 언어 예

절을 결합시킬 데 대한 현명한 조치를 취하였다.

바로 이렇게 공화국 정부에서는 그 창건 첫날부터 조선 노동당의 현명한 지도 밑에 우리 인민의 모국어인 조선어의 가일층의 발달을 위한 정확하고 현명한 시책을 강구하였으며 따라서 빛나는 성과를 거두었다.

國語의 規範化란 國語에 대한 學術的인 研究成果가 뒷받침되어야 하므로, 1947년에 이미 金日成綜合大學에 「朝鮮語文硏究會」를 結成하고, 漢字廢止, 맞춤법制定, 가로쓰기問題등을 硏究케 하였다. 1952년에 科學院의 副設과 함께 이 硏究會는 科學院 傘下의 「조선언어문학연구소」로 넘겨갔고, 以後로는 科學院 언어문학연구소를 中心으로 하고, 各大學의 조선어학(國語學) 講座를 맡고 있는 專門家들을 網羅하여 國語의 規範化와 關聯된 問題들을 理論的인 面으로 또는 實踐方法으로서의 面으로 硏究케 되었다.

이 같은 國語規範化 事業을 벌이는데 있어 北韓의 政治, 社會體制가 알맞았던 것을 알아 둘 必髮가 있으니, 大規模의 事業을 짧은 時日 안에 이룰 수 있었던 것은 全體主義的인 統制에 의해서 言語硏究家들을 한 자리에 모아서, 주어진 課題를 集中的으로 그리고 共同協力으로써 硏究해 나가게 할수 있는 體制를 가졌기 때문이다. 이 또한 北韓에서의 硏究者들이 個別的으로 그리고 自由로히 硏究에 專念할 수 있는 것과 對照的이다. 하여튼 北韓에서는 이같이 國語國字의 規範化를 위한 硏究에 集中的으로 注力하여 모든 言語硏究者들을 한 데 모아 奮勵 硏究케 한 結果 오늘에는 대단히 높은 成果를 거두

고, 目標達成에 一段落지은 것이 事實이다.

그러면 다음에 그 成果들을 部門別로 갈라서 그 研究한 課程과 이루어 놓은 成果들을 간단히 紹介코자 한다.

北韓에서의 國語研究를 이같은 方向으로 몰고 가고 研究者들을 한데 묶어 빠른 成果를 올릴 수 있었는데는, 말할 것도 없이, 공산당의 그들 特有的 批判과 채찍질등으로써 研究者들을 不斷히 조어나간 결과이겠다. 이런 事情을 장황히 說明하기보다 端的으로 「조선어문, 1958년 6호에 실린」어문학 연구 사업의 혁신을 위하여, 단 論文의 一部分을 引用해 보이면 具體적으로 感得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당은 창건 첫날부터 인테리들의 낡은 사상을 개조하기 위한 사업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여 왔다.

그러나 일부 인테리들은 맑스-레닌주의 이론으로 자기를 무장하며 당 정책을 깊이 연구하여 자기의 생활과 과학연구 사업의 지침으로 삼지 못했다. 만일 연구하였다면 그것은 형식적인 연구에 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 부르쵸아 사상 잔재는 의연히 남아 있으며 부르쵸아 사상에 뿌리를 박고 있는 소극성과 보수주의는 이러저러한 형태로 머리를 추켜 들면서 새로운 것에 둔감하게 하였다. 당 정책을 깊이 연구하지 않으며 맑스-레닌주의 세계관으로 무장함이 없이는 과학을 한 걸음도 전진시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혁명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연구 성과도 나올 수 없다.

우리 과학자들은 당 정책을 받들고 당이 가리키는 길을 따라 전진할 대신에 과학의 <<상아탑>> 속에 들어 박혀서 과학의 <<특수성>>, <<신비성>>을 운운하면서 독선을 꿈꾸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창문 넘어 현실에서는 무엇이 일어나고 있으며, 더 우기는 현실이 과학자들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몰랐다. 연구 과제 설정에서 <<전공 과목>>을 운운하면서 자기 <<취미>>에 맞게 현실과는 거리가 먼 문제를 연구하노라고 몇해 동안 아무것도 한일 없이 허송 세월한 사실은 얼마나 무책임한 현상이며 무규률한 현상인가!

이러한 사람들은 자기의 연구 과제를 수행하지 못하고도 아무런 당적 책임감을 느끼지 못했을 뿐 아니라 양심의 가책도 받지 못했다.

이러한 현상은 비록 개인에게도 책임이 있지만 과학 조직 지도 사업에도 일정한 책임이 있다.

과학 사업에서 집체적 연구가 가지는 의의는 자못 크다. 우리 당은 이 문제에 거대한 의의를 부여하면서 오래 전부터 이러한 현상을 경계하여 집체적 역량이 얼마나 유력한가에 대하여 한두번만 강조하지 않았다. 그러나 어문학 연구 사업에서는 집체적 연구가 경시되었다. 그것은 일부 연구 성원들의 소극성과 보수주의가 집체적 토론을 꺼렸으며, 자기의 소위 <<견해>>를 <<신성화>>하면서 진지한 과학적 토론의 기풍을 마비시켰다. - 과학 사업에서는 안일성과 해이성을 극복하고 긴장된 전투적 태세를 갖추고

것은 현 시기에 긴요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과학 사업은 곧 전투다.

그러나 지난 기간 일부 어문학자들은 연구 사업은 한가한 곳에서만 진행되어야 한다는 부르조아 사회에서만 있을 수 있는 안일하고 해이한 사상 경향으로부터 출발하여 현실에서 도피하는 경향도 없지 않았다. - 우리의 모든 생활에서 낡고 진부하고 보수적이며 소극적인 것들을 대담하게 털어 버리면서 혁신을 일으켜야 한다.

1) 맞춤법의 分野에서

國語의 規範化에서의 맞춤법 統一의 重要性은 새삼스레 말할 것도 없을 것이다.

北韓에서는 解放後 얼마동안은 「한글 맞춤법 통일안 (1933년)」을 그대로 써 오다가 그 뒤로 국어 研究가 이뤄 놓은 成果와 知識등에 비추어 볼 때 여러 가지 不備한 점이 있었으므로 이를 가다듬고 合理化하여서, 1954년 과학원에서 「조선어 철자법」으로 내어 놓았다.

이 「철자법」과 「한글 맞춤법 통일안」과 比較해서 두두러지게 눈에 띄는 差異는! 「-르가, -수록, -르지라도」등을 이같이만 적고 「-르까, -르쭈루, -찌라도」등으로 적지 않는 점, 漢字音의 表記에서 頭音「ㄹ」, 「ㄴ」을 그대로表記하는 점, 前舌母音系列 다음에 오는 「-어」 「-었」을 「-여」 「-였」으로表記하기로 한 점, 사잇소리를 「'」附号로써 나타내기로 한 점 등이다.

이 「철자법」規定은 「조선어 철자법, 1954년, 과학원 출판사」에 실려 있고, 낱말의 單語들의 철자법은 「조선어 철자법 사전, 1956년, 과학원 출판사」, 「조선어 소사전, 1956년, 과학원 출판사」, 「조선말 사전, 6권, 1960년 以後 과학원 출판사」등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이 「철자법」에 대한 解説로서 「장장명저, 조선어철자법해설, 교원용, 1958년, 교육도서출판사」를 볼 수 있다.

그뒤 1966년에 이 「철자법」을 더욱 가다듬고 合理的이며 簡便하게 整理하여서 「조선말규범집, 공화국내각직속국어사정위원회, p. 64」를 내고, 이와 더불어 그때까지 써오던 前記 「조선어철자법」의 規定은 안 쓰기로 하였다.

여기서 「규범집」이란 名稱은 ; 「맞춤법, 띄어쓰기, 문장부호법, 표준발음법」등의 規範을 한데 모아 놓은 것이란 뜻이다. 「한글맞춤법통일안」에서는 띄어쓰기, 문장부호, 외래어표기법 등에 관한 規範들을 맞춤법 범주안에 넣었었지만, 「조선말규범집」에서는 正書法이란 범주의 下位범주로서 맞춤법, 띄어쓰기등을 定位시켰으므로 맞춤법이란 名稱을 안 쓰고 「조선말 규범집」이라고 名稱하게 된 것이다.

2) 標準發音法의 分野에서

국어맞춤법은 形態主義原則에 立脚한 것이어니와, 形態主義的인 맞춤법에 있어서는 表記와 發音이 一致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써놓은 것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의 規範이 必須的으로

附隨되어야 한다. 이를테면, 「닭이」를 [다기]로 읽는지 [달기]로 읽는지, 「부엌안」을 [부어간]이라고 읽을지 [부어칸]이라고 읽을지, 「굳이」를 [구디]로 읽어야 되는지 [구지]로 읽어야 되는지, 또는 「이것은」을 [이거든]으로 發音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런것을 許容할 것인지 등에 관해서 確實한 規範을 세우지 않으면 안된다.

「한글맞춤법통일안」에서는 이런 「표준발음법」에 관한 規定이 없어 사전에 의거할 수 밖에 없다. 표준발음법은 또한 「의, 외, 위, 예」의 發音이라든가 음의 길의, 액센트, 語調 등에 관한 發音法의 規範도 반드시 다루어야 한다.

北韓에서는 「조선어철자법, 1954년, 과학원」에서도 표준발음법을 規定하고 있었으나, 그뒤 1966년의 「조선말규범집」에서는 한 章으로 따로 세워서 그 規範을 定하였다. 이 規範은 「조선어문법, 1960년, 과학원 출판사」 「현대조선어 (I), 1961년, 고등교육도서 출판사」 등의 該當部分에서도 서술되어 있고, 낱말의 單語들의 發音法은 「조선말사전, 6권, 과학원 출판사」의 올림말의 發音表示 등에 明示되어 있다.

3) 外來語表記法의 分野에서

오늘날과 같이 外國과의 交流가 빈번해져 술한 外來語가 들어와 쓰이고, 外國의 地名, 人名 등을 적을 必했가 자주 있게 되는 마당에서는 外國語表記法의 規範制定의 必要性은 아주 큰 것이다.

北韓에서는 「조선어학회」(한글학회의 前身)에서 1940년에 펴

낸 「외래어표기법통일안」을 쓰다가 좀더 實踐性 있는 規範을 짓기 위한 전문위원회로 하여금 研究케 하여 1956년에 「조선어외래어표기법」을 作成하였다. 그뒤 純全히 表音主義原則에 따라서 外來語를 表記하던 弊端을 고치고 될수록 外國語의 音韻과 우리말의 音韻을 對比하여 같은 音韻은 같은 字母로 적는 方向에서 外來語表記法을 作成키로 하여, 1958년에 前記 表記法을 修正補充하여서 露語篇, 英語篇, 獨語篇, 라틴語篇으로 構成된 「외래어표기법」을 發表하였다.

4) 辭典編纂의 分野에서

單語와 그 意味分野에서의 規範化 事業에서 커다란 意義를 가지는 것은 現代語註釈辭典이다. 學生이나 一般人이 單語의 意味를 찾고 決定하려 할 때 우선 찾게 되고 또 最後의 判定을 내림에 依拠하는 것이 註釈辭典이기 때문이다.

北韓에서는 1948년에 「조선말사전」을 發刊할 計劃을 내각결정이 採択하고, 「조선어문연구회」가 이 事業을 主管하여 맡게 됐다.

6.25 事變으로 이 事業이 中斷되었다가 그 後 과학원언어문학연구소 사전 연구실이 이 事業을 이어서 맡아 1956년에 우선 「조선어소사전」(語彙數 4萬餘, P.709)을 發刊하고, 이어 1960년부터 「조선말사전」을 發刊하기 시작하여 1962년에 6卷까지 完成하였다. (語彙 約5,054 페이지)

이 辭典에 대한 간단한 評이 「現代朝鮮語辭典: 菅野裕臣, 朝鮮學報 45輯, 日本天理大內」에서 言及되어 있다.

1968년에 과학원언어연구소에서 「현대조선말사전」(1,950 페이지

지, 語彙數 5萬餘)을 내었는데, 이 사전의 特色은 「語彙整理의 決定」에서 잘라버린 漢字語 外來語등은 실지 않고 現在 실제로 주로 쓰이고 있는 말을 골라 실었다는 것이니 國語純化의 뜻을 바탕으로 한 辭典이라 하겠다.

5) 規範文法 編纂의 分野에서

規範—理論文法, 그리고 學校文法 編纂은 教育에 있어서의 統一된 文法體系 教授의 必要性에서, 또 모든 國語 規範의 理論的 뒷받침이 된다는 점에서 대단히 重要한 意義를 가진다.

北韓에서는, 1949년에 「조선어문연구회」의 名義로 「조선어문법」을 編纂하였고 1960년에는 言語學者들의 集体的인 努力으로써 「조선어문법 1, : 공화국 과학원 언어문학연구소 언어학연구실, 과학원 출판사 刊行」이 發刊되었다. 이 「조선어문법 1」은 「어음론, 형태론」을 다루고 있어 480 페이지의 大著인데, 그 價値와 意義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評價된다. 이어 1963년에 역시 과학원 언어문학연구실에서 그 統編으로 「조선어문법 2, (문장론), P.311」을 發刊하였다.

이 밖에 「현대조선어(2); 형태론, 1962年, 고등교육도서출판사」등이 있다. 이들 文法 樹立에 대한 理論的 뒷받침을 주기 위한 연구들은 주로 言語學理論雜誌 「조선어 연구」, 「조선어문」, 「조선어학」등에 發表되고 있다.

1963년까지의 이들 言語學理論에 관한 研究論著目錄으로서 어느 程度 갖추어진 것을 「朝鮮語學史: 小倉進平」의 補註: 河野六郎에서

볼 수 있다.

6) 漢字廢止에 관하여

北韓에서는, 書寫生活을 大衆化하기 위해서는 漢字를 안 써야 된다는 뜻에서, 解放後 直時로 日常·書寫生活에서 漢字使用을 全面的으로 廢止하도록 하고 1949년에 이르러 全般的인 出版物에서 漢字使用을 完全히 廢止하였다. 이에 따른 措置로서 漢字로 쓰인 古典遺産에 대해서는 慎重을 期하여, 古典을 研究하기 위해서 專門家들로 하여금 더욱더 漢文을 研究하도록 保障하고 古典을 國어로 翻譯케 하여 古典의 大衆化를 꾀했다.

筆者의 눈에 띄인 漢文古典國訳書의 目錄을 다음에 적는데, 그중의 「박지원작품선집」의 通卷數가 27卷으로 되어 있음으로 朴서 國訳書出刊은 相當한 卷數에 이르고 있음이 짐작된다.

○고가요집, 조선고전문학선집 1, 1958년, P372.

○고대전기설화집, P550, 1964年

○가사전집, 1964年, P603.

○력대시전집, 조선고전문학선집 5, 1963, P460.

○풍요선집, 1963年, P460.

○리제현작품선집, 1960年, P310.

○김시습작품선집, 1963年, P.428.

○박지원작품선집 3, 조선고전문학선집 27, 1960年, P700.

○력대격문(激文)선, 1963年, P300.

그런데 漢字를 廢止한다는 것은 언뜻 생각하기에 文面에서 漢字를 없애버리면 된다는 單紳한 일같지만, 일단 이 事業의 안을 들여다 볼것 같으면 거의 끝이 안 보이게 많은 問題들을 안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北韓에서는 우선 漢字廢止와 더불어 당장에 處理해야 할 問題들 — 漢字語를 국어로 바꿔 말하는 問題(枝脈→가닥 줄기, 碎石→부스러기 돌 따위), 日本式漢字語를 몰아내는 問題(仕上工→마무리 공, 書留→등기 따위), 漢字成句를 안 쓰고 그에 대신할 국어의 成句로 대신하는 일(進退維谷→오도가도 못한다 따위)의 解決을 시작하였다. 이와 같은 問題만도 결코 작은 일거리는 아니지만, 그렇더라도 그같은 事業은 漢字廢止라는 큰 手術에 따른 應急的인 對症的인 것에 그치는 것이다. 問題는 必然的으로 國語의 規範化, 國語의 化, 그리고 그들의 이른바 「인민적 문풍 확립을 위한」 廣範한 運動으로 까지 展開되어 나가지 않을 수 없었다. 곧 消極的인 對処라는 姿勢에서 積極的으로 國語를 洗鍊되고 아름답고 쉬운 言語로 發展시킨다는 더 높은 次元의 目標로 匯집하여 廣範한 問題로 擴大시켰던 것이다.

또 이와 아울러서 따라 나오는 것이 學術技術用語의 制定問題이다. 그래서 다음에 學術技術用語査定과 이른바 문풍개혁운동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살펴 보기로 한다.

7) 學術技術用語査定에 대하여

學術技術用語가 科學技術文化의 体系的인 發展과 깊은 關係

을 가짐은 우리가 日常 뼈저리게 느끼는 일이다.

北韓에서는 그 重要性에 비추어, 1949年 2월에 「학술용어사정위원회」를 組織하여 科学者, 技術者, 言語學者들을 網羅하고, 各專門分野別로 40餘個의 分科委員會를 組織하여 이들 部門別學術用語草案을 作成하여 広範한 審議와 檢討를 거쳐 그 統一案을 차례로 發表해 내고 있다.

朝鮮語學史: 小倉進平의 補註: 河野六郎에 1963年까지의 學術用語查定の 成果가 一部 發表되어 있으니 여기 옮겨 보인다.

- 학술용어(교육편) : 학술용어사정위원회, 과학원출판사, 1959年, 四六版, 98 페이지
- 학술용어(지질탐사편), 1959年, 116 페이지
- 학술용어(기술과학편), 1953年
- 학술용어(지리 및 수문편), 1959年, 100 페이지
- 학술용어(지명통일), 1959年, 220 페이지
- 학술용어(섬유과학편), 1959年, 250 페이지

또 다음과 같은 參考資料도 있다.

- 술어 해설 <말과 글, 1961年11月号>
- 농업부문 술어해설 <말과 글, 1962年1月号>
- 방직부문 술어해설 <말과 글, 1962年2月号>
- 수산부문 술어해설 <말과 글, 1962年3月号>
- 금속부문 술어해설 <말과 글, 1962年5月号>
- 기계제작부문 술어해설 <말과 글, 1962年6月号>

○ 건설 부문 술어 해설 <말과 글, 1962年9月号>

○ 술어해설 (농업관계) <말과 글, 1962年11月号>

이 學術用語査定에 있어서는 그 統一 規範制定에만 考慮를 늘린 것이 아니라 漢字語 그 가운데서도 어려운 漢字語의 大部分이 이들 學術用語가 차지하며, 또 學術技術用語의 大部分이 日本製漢字語란 점에서 이 問題가 漢字廢止, 國語純化와도 같이 關聯됨을 생각해서 이들을 될수록 固有語로써 또 쉬운 말로써 制定하기로 하고 여러 신문이나 雜誌, 「말과 글」誌 등에서 널리 學術用語의 새로운 案에 대한 大衆의 討議를 展開하여 査定에 反映 參考케 하고 있다.

「ハングル専用問題おぼえがき: 大村益夫, 早稲田大学 人文論集 7号, 1970年2月2日, P195」에 의하면, 漢字語의 學術語를 어떻게 固有語로써 바꾸느냐 하는 試案이 「노동신문」紙上에서만도 이미 二百數十회에 걸쳐 掲載되고 있다 한다.

또 「말과 글」에서의 이런 試圖를 잠깐 들어 보이면;

「이렇게 고치면 어떻습니까?」<말과 글>

- 교통 운수 부문- 1959年5月号
- 교육 부문- 1959年6月号
- 수산 부문- 1959年7月号
- 음식 이름- 1959年8月号
- 지질 부문- 1959年9月号
- 체육 부문- 1959年12月号

- 출판 부문- 1960年 11月号
- 문학, 음악 부문- 1960年 12月号
- 기계부문- 1960年 3月号
- 금속 부문- 1960年 4月号
- 광산부문- 1960年 6月号
- 화학부문- 1960年 8月号
- 경제부문- 1960年 9月号
- 건설수리 부문- 1960年 10月号
- 주물 부문- 1961年 1月号
- 물리 부문- 1962年 3月号
- 수문부문- 1962年 5月号
- 기상천문부문- 1961年 6月号

특히 1961年 11月 25日에 내각 결정으로 학술용어사정 위원회에 관한 規定이 採択되어 同 委員會가 強化되어서 더욱 精密하고 철저하게 作業을 進行시키기로 하였다.

8) 이른바 「문풍확립」에 대하여

우리가 北韓에서 의 글을 읽으면, 無味乾燥하고 한결 같으면서, 그 反面 論理的이고 명석하고 쉽게 理解된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 그러면 北韓의 글의 이같은 性格은 共產主義體制가 가져다 준 自然的인 帰結인가? 곧 28年間の 公산주의체제가 北韓의 글을 어 느덧 이같은 性格의 것으로 만들어 내었는가? 이러한 推測은 틀린것은 아니겠지만 眞實의 一部分만을 가리킴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에게 이 같이 독특하게 보이는 글체는 北韓에서 一定하게 세워진 理論과 計劃에 따라 그 方向으로의 상당한 努力의 結果 이워낸 人爲的인 結果인 것이다. 그들은 이 같은 글체의 改革의 概念을 「문풍」이란 말로 부르고 있다.

國語의 規範化의 여러 일들-앞에서 살핀 正書法制定, 표준어制定, 학술用語査定등등은 모두 이 문풍에 包含되는 그 보다도 문풍을 위한 前提的인 作業의 一部로서 理解되고 있다. 漢字廢止도 그 시초에 있어서의 理論이야 어찌했던 오늘에는 이 문풍이란 目標에의 出發點으로서, 문풍 안에 發展的으로 解消되는 것으로 생각한다. 문풍이란 단순히 言語化가 아닌 것이며, 그들 받치고 있는 바탕은 공산주의 理念에 따른 그들의 사회주의적 理論이다. 곧한 마디로 말하여 국어의 使用을 공산주의적인 것으로 이루려는 것이다.

이 문풍에 대해서는 많은 論議가 있으나 여기서는 「문풍에 대한 이해를 더욱 심화하기 위하여: 김수경, (조선어학, 1963년 3호)란 論文을 要約해 보임으로써 그 概念을 알아보고자 한다.

이 論文에서는 문풍의 本質 그 基本內容을 살피는데 있어 言語實踐에서의 立場, 觀點의 面에서 문풍을 넷으로 갈라서 說明하고 있다.

(가) 언어 실천에서 당적이며 인민적인 입장을 견지하는 측면
언어의 본질과 기능에 대한 입장에서 문풍확립의 문제와 직접 관련해서 우선 강조해야 할 것은 "조선어는 조선 혁명수행의 중요한 무기의 하나라고 인정하는 입장에 튼튼히 서야 한다.

언어는 인민대중에 대하여는 선전 교양의 수단으로 되며 원수에 대하여는 강력한 투쟁의 도구로 된다" 하고 이같은 言語觀에 설 때 "당연히 언어가 지니고 있는 두가지 커다란 기능 통신적 기능과 표현적 기능 중 통신적 기능에 우위성을 인정하는 입장에 서게 된다. 우리가 구체적 언어 사용에서 알기 쉬운 말, 규범적인 언어로써 간결하고 정확하고 명료하게 표현해야 한다는 것도 바로 이 언어의 기본적 사명으로부터 나오는 당연한 귀절이다" 고 하였다.

또 言語에 대한 人間의 側으로부터의 積極的인 規範化 事業이 可能하며 또 必要하다 하여 "일찌기 부르쥬아 언어학자들 사이에서는 언어들 하나의 유기체로 간주하고 언어에서의 모든 변화는 언어 그 자체의 자연적 발달의 결과이며 따라서 인간은 다만 이에 순종할 뿐 어떠한 간섭도 시도해서는 안된다고 하는 주장이 지배적이었다" 고 批判하면서 "이러한 견해들은 언어 발달과 사회의 발달과를 분리시키는 입장으로서 결국 언어 규범화의 가능성과 필요성을 거부하는 입장이다" 고 하여 掘否하고 "우리는 조선어의 문제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두며 우리 말을 조선 혁명 수행에 보다 더 잘 복무할 수 있도록 발달시키는 방향으로 노력해야 한다" 고 強調하였다. 이어 "우리가 글을 쓰거나 이야기를 할 때 우선 客觀的인 관점을 가져야 한다. 이 문제는 일견 언어와는 직접 관계가 없는 문제같이 보인다. 그러나 우리가 말과 글에서 정확성, 명료성등을 요구할 때 그것은 바로 사상에서의 정확성, 명료성을 전제로 하는 것이며 오직 맑스-레닌주의 세계관으로 무장하고

우리 혁명의 입장에서 客觀的 현실을 고찰할 때에만 우리는 문제를 정확하게 고찰하고 우리의 말과 글을 정확 명료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고 하였다.

그리고 " 우리의 혁명이 인민대중을 위한 것이며 인민대중을 떠나서 우리의 어떠한 사업도 있을 수 없을만큼 어떠한 말, 어떠한 글이라도 항상 인민 대중이 원하는 그들이 알아 들을 수 있게 되어야 한다. 군중에 대한 혁명적 관점은 구체적으로 언어 위에서는 말과 글의 평이성을 보장하도록 노력하는데서 나타난다. 즉 전달하려는 사상 내용을 가능한 한 알기 쉽게 표현하는 데서 나타난다" 고 하였다.

(나) 혁명 수행에 절실한 내용을 전달하는 측면

" 문풍 확립을 위하여는 말과 글의 내용에서도 당성, 계급성을 보장하는 문제가 중요하게 제기 된다. <대중이 알아 들을 말> <대중이 원하는 글>이란 단순히 평이한 말이나 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대중이 알고 싶어 하며 그들에게 절실한 문제들을 해설하고 그들의 진정한 목소리를 반영하는 그러한 말과 글을 의미한다" 하고 이어 말과 글의 內容에서 眞實性과 革命的精勢로써 안받침되어 있어야 한다 하고, 眞實性은 " 첫째로 사상 감정의 표현의 率直性에 의하여 보장되며 둘째로 사실과의 부합, 그리고 론리와의 부합에 의하여 보장된다" 고 하고 革命的情熱은 " 혁명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심, 조국과 인민에 대한 무한한 사랑, 원수에 대한 불타는 증오의 정신으로 나타난다. 다시 말하면 혁

혁명적 정열이란 우리 시대의 모든 새로운 것, 선전적인 것, 위대한 것에 대하여는 정열을 담고서 격조 높게 서술하여 우리의 원수에 대하여는 치솟는 격분과 야유로써 그려내는 투쟁정신을 의미한다” 하였다.

(다) 언어 행위를 매개의 구체적 정황에 適應시키는 측면

문풍 확립에서 언어행위를 매개의 구체적 정황에 적응시키는 측면이 강조되는 것은 우리의 언어 행위는 결코 모든 경우에 천편일률적으로 피여서는 안된다는데 그 근거가 있다. 언어는 인간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교제의 수단으로 리용되는만큼 그 교제의 분야, 교제의 조건, 교제의 목적, 진술의 내용, 대상의 특성 등등 매개의 구체적 정황에 따라 그에 적당한 언어수단들을 선택 사용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한다.

(라) 언어 수단의 규범성과 표현성을 보장하는 측면

“언어가 가지는 통신적 기능의 관점, 민족어의 통일성 보장의 필요성 등에 비추어 우리의 모든 말과 글이 무엇보다도 먼저 규범화된 언어로 되어야 할 것은 루루히 설명할 필요도 없다. 규범화된 언어 수단을 사용하지 않을 때 사람들의 호상 이해와 호상 교제는 곤란하게 될 것이다.

단어 사용, 문법, 철자법 그리고 발음상에서의 의무적 규칙의 체계의 존재 이것이 전 민족적 언어 규범의 본질을 이루며 구체적으로는 표준어의 형태로 나타난다. 이리하여 우리의 말과 글에서 어휘, 문법, 철자, 발음등 모든 분야에 걸쳐 표준어의 규범을

第 4 章 北韓의 對南言語戰略

北韓은 以上과 같은 言語政策에 立脚하여 南北對話를 進行하는 過程에서도 革命輸出에 앞서 그들의 言語輸出을 적극 先行시키려고 作用하고 있다.

다음 表 (1)과 表 (2)에서 그 具體적인 實例를 보면 第 1 ~ 2 次 南北調節委員會에서 南北赤十字會 議時에 使用된 用語를 살펴 보면 祖國의 自主的 平和統一이 總 119 回, 合作이 138 回, 民族的大團結이 83 回, 主体가 14 回 등으로 各各 反復使用되고 있다. 이와같이 北韓은 선동적이며 격정적인 用語를 使用함으로써 韓國側會議代表들로 하여금 不知不識中 北韓의 造作的·規範的 用語를 使用케 함과 동시에 나아가 南韓國民들에게도 民族的 共感의 誘發을 惹起시킴으로서 對話의 政治的飛躍을 끈질기게 企圖하고 있다.

〈表 1〉 第 1 ~ 2 次 南北調節委員會에서 使用된 北韓의 革命的 用語의 頻度

用 語	頻 度
合 作	134 回
人 民	34 回
民族的·大團結	31 回
偉 業	21 回
互 相	20 回
祖國의 自主的 平和統一	18 回
감 빠 니 아	7 回
手 票	6 回

用 語	頻 度
連 繫	4 回
일 軍	4 回
南 北 協 商	4 "
外 勢 衣 存	4 "
外 勢 排 斥	4 "
盲 動 分 考	2 "
고 리	1 "
豫 備	1 "
互 惠	1 "
비 날 론	1 "
主 体 的	1 "
首 令	1 "

〈表 2〉 南北赤十字会谈時 使用된 革命的 用語의 頻度 (1~4 次)

用 語	頻 度
祖国의 自主的 平和統一	101 回
民族的 大團結	52 "
互 相	28 "
人 民	25 "
民族的 团合	14 "
主 体 思想	17 "
主 体 的	13 "

用 語	頻 度
世界平和愛好人民	9 回
偉 業	9 "
民族的 和睦	8 "
外 勢 依 存	8 "
豫 備	8 "
合 作	4 "

이와 같이 北韓은 그들의 新造語를 마구 使用함으로써 北韓을 民族語 發展基地로 造成한다는 對南 言語政策上的 實踐的 普及活動을 展開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결국 그들 新造語의 一般化·普遍化를 劃策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北韓은 合議文 또는 共同發表文을 作成할 때 同一用語를 南北이 使用하게 된다 할지라도 北韓側은 그들에게 有利한 解析을 留保할 수 있도록 하는 用語의 使用을 貫徹코져 하고 있다.

예컨대 「自由의 原則」이란 개념 解析에 있어서 北韓은 離散家族, 親知들의 來往과 相逢, 書信去來와 家族의 再結合이 最大限 自由롭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며 여기에 어떤 條件이나 制限도 加해지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것이다. 또한 「民主主義原則」이란 개념 解析에도 自己 問題는 自己가 判斷하여 處理할 수 있도록 充分한 意思表示와 自由가 保障되어야 한다는 意味로 파악하고 있는 것이다.

以上과 같은 北韓의 對南言語戰術은 다음과 같은 效果를 獲得코자 하는 것이다.

即 韓國側의 代表와 言論人 으로 하여금 北韓式 用語使用의 免疫性을 賦与 하여 우리가 無意識中 이를 使用토록 하는 契機를 誘導하며, 이로서 北韓側主張과 政策을 警覺性없이 받아들여도록 하는 바탕을 漸進的으로 마련 하고 特히 國民大衆에게는 南北間의 冷酷한 政治的 現象을 度外視하고 感傷的 態度를 誘發케 하려는 것이다.

이와 같은 事實은 지난 72年 12月 1日 朴成哲이 第1次調節 委員長 會議에서 文化合作을 提議하는 가운데 雙方 語學團體들이 外來語를 除去하고 統一性을 期하기 爲한 民族語의 單一的 發展 事業과 特히 同成果의 政策化 措置를 主張한 底意로 보아서도 明白한 것이다.

따라서 이에 對處해야 할 우리의 對策樹立은 切實히 要求되는 것이다.

첫째, 實際的으로 北韓과 對話를 交換하는 會議과 豫想되는 實際交流 및 이와 關聯한 諸般報導의 세 가지가 三位一體的으로 北韓의 言語戰術에 對應하는 統一된 諸用語를 一貫性있게 使用하는 것이 緊要하다.

따라서 協商當事者들間의 對話는 勿論 合議文 및 施行細則의 作成과 國民敎道 및 弘報活動에서 우리가 忌避해야 할 北韓의 特異 用語는 使用치 말도록 하는 것이 하나의 方策인 것이다.

둘째로는 言語淨化運動을 적극 展開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爲해서는 專門言語研究機關을 設置하여 彼我間의 言語를 깊이 研究케 하므로써 北韓의 言語戰術을 压倒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였으며 言論, 出版等 報導活動에 있어서도 自体淨化를 期하도록 調整하고 鞭撻하여야 할 것이다.

第 5 章 結 論

序論에서 提示한 바와 같이 北韓의 言語政策의 特徵과 實態를 把握하기 爲한 研究는 무엇보다도 四半世紀 동안 南北으로 分裂되어 온 過程속에서 우리의 固有言語가 各己 相異한 體制의 틀속에서 相異한 独自の인 方向으로 變遷해오게 됨에 따라서 未知의 將來에 展開될 南北韓의 한글(固有言語) 共同研究에 있어서 우리의 協商 代表들이나 共同研究에 參席하게 될 國語學者들에 對한 相對方(北韓側)의 業績과 情報를 보다 正確하고 分析的으로 提供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서 南北共同學術研究를 爲한 우리의 主動的 戰略的 代案을 作成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對北政策에도 一貫性 있는 戰略을 積極的으로 展開하므로서 所謂 北韓의 造作된 言語政策에 말려들지 않을 수 있으며 나아가서 固有言語의 參된 面을 南北韓이 統一的으로 實踐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슬프게도 한글研究에 있어서 우리는 해방 후 지금까지 政府와 國語學者들간에 一絲紛亂한 研究活動이 全無하였고 또한 政府의 한글施策이 一貫性を 欠하므로서 한글의 發展에 있어서 北韓에 뒤떨어져 있는 것이 事實로 되어 버렸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우리는 南北韓 言語共同研究 또 나아가서 言語交流를 爲해서는 지금보다 倍加되는 言語研究가 있어야 하겠으며 이를 爲해서 政府는 積極적인 言語研究 및 言語振興政策을 展開하여야 될 것이며 이같은 事前研究 및 事前의 한글發展의 體系化作業이 없이는 南北韓 한글共同研究 및 言語交流는 當분간 止揚되어야 할 것이다.

周知되는 바와 같이 北韓은 그 言語政策을 文化革命의 一環으로 積極 展開하고 있다. 이리하여 北韓의 「規範集」은 지금까지

우리가 그대로 답습해 오고 있는 日帝下 수난속에서 만들어 놓은 統一案보다 더욱 洗鍊되고 進歩되어 있다. 그들은 이미 統一案을 바탕으로 2次에 걸쳐서 갖고 다듬어서 統一案의 修正版인 「規範集」을 이미 만들어 내놓은 것이다. 이리하여 萬一 앞으로 統一된 國語의 「規範集」을 南北韓의 共同研究에 依하여 만들 경우에는 北韓의 規範集에 依拠하여야 한다는 것이 不可避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우리의 대책은 北韓의 規範集도 亦是 不完全하다는 것을 認識하여 한글 自体의 問題性이 무엇인가를 더욱 면밀히 分析하여야 될 것이다. 이르기 爲해서 우리는 專門言語研究機關을 政府의 積極적인 지원과 主導下에 設置하는 한편 言語靜化運動을 積極 展開해야 할 것이다.